

여성복 테일러드 칼라 패턴 비교연구 -의복구성학 교재를 중심으로-

정 화 연[†]

국제대학교 패션계열

A Comparative Study on the Tailored Collar Patterns of Women's Jackets -Focus on Clothing Construction Textbooks-

Hwa-Yeon Jeong[†]

Dept. of Fashion, Kookje College

접수일(2010년 1월 5일), 수정일(2010년 4월 2일), 게재확정일(2010년 4월 7일)

Abstract

This study selected and compared 7 tailored collar making factors from 15 clothing construction university textbooks. According to the results, in 15 clothing construction textbooks, the neckline of a tailored collar was drawn at the same length as the back neck circumference of the bodice and the length of collar stand was 3cm in 10 textbooks. In addition, the length of the collar laying varied between 2cm and 4.5cm regardless of the width of the upper collar or the textile thickness. In 7 out of the 15 textbooks, the gorge line of the collar was drawn by illustrating the collar pattern on the bodice based on the roll line and then copying it symmetrically. On the other hand, the pattern of upper collar was made in 5 ways; and 2 books did not give any explanation in the sections dealing with patterns or sewing. In addition, 6 textbooks explained that inner and outer collars are sewn with a difference. The lapel pattern of the facing part was made in 4 ways; in addition, 3 textbooks did not provide an explanation and 4 books explained that the difference is given in the sewing. The textile thickness and elasticity need to be considered in collar pattern making; however, they were not specifically mentioned in most of the textbooks.

Key words: Tailored collar, Factors of tailored collar making, The gorge line; 테일러드 칼라, 칼라 제작 요인, 고지선

I. 서 론

과거 우리나라 산업기반의 주축이 되었던 봉제산업은 인건비 상승 및 제조 원가 증가에 따른 생산 기반 붕괴로 인하여 갈수록 해외 생산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게 되었다. 하지만 패션산업이 타국과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차별화된 디자인력과 아울러 체계적

인 생산 시스템이 절대적이라 할 수 있다. 즉 패션산업은 기능 인력의 교육이 매우 중요한 산업이고 숙련된 인재의 필요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패션관련 교육기관에서는 디자인에 치중된 교육을 함으로써 업계에 필요한 생산 기능적 인력을 공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김선영, 최영순, 2006). 이태리, 서독, 일본 등 봉제 선진국의 경우 섬유소재 및 봉제생산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고도의 기술력으로 제품의 고급화를 추구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 차원에

[†]Corresponding author
E-mail: jhykcd@yahoo.co.kr

서의 지원책 부족 및 사회적 인지도 부족으로 인해 봉제 전문 인력과 생산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고 품질 의류제품을 생산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어미경, 1996). 특히 다른 의류아이템보다 재킷은 더 많은 숙련도가 요구되며 테일러드 재킷의 칼라 부분은 봉제 공정이 복잡하고 소재나 심지의 성질, 자리잡음이나 봉제 방법 등에 따라 칼라 형태가 달라지는 등 칼라의 형태에 미치는 요인도 다양하고 봉제 방법도 다양하여 봉제 방법이나 패턴에 대하여는 숙련공 사이에서도 이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김구영, 2008)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20세기 초 이후 여성들의 사회 진출 기회가 증가되면서 남성적 재킷이 일반 여성층에까지 보급되면서 그 착용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점차 여성 재킷이 보편화되면서 현대에 와서는 이미지에 맞는 다양한 연출을 위한 핵심 품목으로(정미경, 1993; 한정숙, 1996) 널리 착용되고 있다. 여성 재킷은 남성의 테일러드 재킷에 비해 디자인이 매우 다양하고 유행의 경향도 자주 바뀌는 등으로 인해 디자인과 제도상의 문제점의 보완이 요구되며 특히 테일러드 칼라의 기능적이고 미적인 설계를 위해 과학적 설계법과 그 평가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김구영, 2008). 재킷의 이미지는 재킷의 형태, 색상, 소재 등 디자인 요소들의 시각적 특성과 그들의 상호작용에 의해 영향을 받는데(안화노, 2008), 여러 요소들 중 재킷의 테일러드 칼라는 칼라의 넓이, 윤곽선의 형태, 스탠드분의 높이 등을 조정하여 착용자의 체형적 단점을 감출 수도 있고 장점을 강조할 수 있는 만큼 의복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박혜숙, 1987). 여성 재킷의 대표적인 칼라인 테일러드 칼라의 기능적이고 미적인 칼라 설계를 위해서는 과학적인 원형 설계 방법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 테일러드 칼라의 패턴 제작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학과 패션 관련 교육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의복구성학 교재에 나타난 테일러드 칼라 패턴 제작 방법의 이론적 고찰을 통해 각 제작 방법을 비교, 분석하였다. 아울러 각기 다른 패턴 제작 방법에 따라 광폭으로 칼라 부분을 만든 후 패턴의 차이를 살펴보았으며 이 연구결과는 학교 교육에서 테일러드 칼라 패턴 제작 시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II. 이론적 배경

1. 테일러드 칼라에 관한 선행연구

테일러드 칼라는 테일러드 재킷의 칼라 형태를 일컫는 것인데,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테일러드 칼라에 대한 연구보다는 테일러드 재킷에 관한 연구가 다수를 차지하였다.

먼저 여성복 테일러드 재킷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재킷 여유량 및 패턴 제작에 관한 연구(김은섭, 2000; 김현식, 2004; 김희진, 2003; 박은경, 1990 등), 신축성 직물 및 소재에 관한 연구(김명옥, 2006; 장세은, 2006), 재킷 생산실태에 관한 연구(심재희, 2002), 재킷의 이미지 평가(류숙희, 박종희, 2004) 및 디자인 변화에 따른 시각적 효과(한정숙, 1996) 등에 관한 연구가 있었다. 한편 테일러드 칼라에 관한 연구로는 산업체에서 테일러드 칼라를 제도하고 봉제하는 방법과 대학 교재에서 사용되는 방법을 비교한 여성복 테일러드 칼라 비교연구(홍순태, 2001), 테일러드 칼라 패턴 제도법에 따른 시각적 이미지 연구(이보나, 2005), 테일러드 재킷의 칼라 제작 요인에 관한 연구(김구영, 2008), 테일러드 재킷 칼라 패턴 및 봉제법 연구(안화노, 2008)에 불과하여 테일러드 칼라에 대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2. 테일러드 칼라의 제작 요인

칼라는 몸판의 네크라인에 달리며 목부위에 대응하는 의복의 일부분이다. 칼라가 달리는 몸판의 네크라인은 신체의 목둘레 주변에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얼굴형에 맞는 디자인은 물론 목부위나 어깨부위의 형태요소 즉, 목의 길이, 굵기, 둘레 등의 치수와 경사각 등과의 관계, 목부위의 굴곡, 회선 등의 운동도 포함하여 패턴을 구성해야 한다(박혜숙 외, 1998). 칼라는 칼라 외곽선, 칼라 꺾임선, 칼라 달림선의 세 가지 구성선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세 가지 구성선은 서로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강순희, 서미아, 2005).

의복의 디자인이 다양화됨에 따라 칼라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전개되면서 명칭 또한 다양화되었는데 이 중 테일러드 칼라는 신사복 칼라를 가르키는 것으로 18세기 프랑스 혁명 후 처음으로 남성복으로 등장하였으나 지금은 여성 재킷에도 널리 활용되고

있다. 길에 이어진 라펠과 따로 분리된 칼라로 구성되어 있고 라펠과 칼라의 이음부분의 모양에 따라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분류되지만 그것에 관계없이 신사복 타입의 칼라는 모두 테일러드 칼라라고 부르고 있다(이영재, 1996) 이 칼라는 길의 일부분인 라펠 부분과 윗칼라로 구성되어 있으며 꺾임선의 위치, 라펠의 너비, 윗칼라의 형과 크기, 앞여밈분의 정도 등의 조건에 의해 각각각색으로 변화한다(최경자, 신혜순, 2001). 테일러드 칼라의 각 부위별 구체적 명칭은 <그림 1>과 같다.

테일러드 칼라의 구성요소를 추출해 보면 목둘레선, 칼라 외곽선, 칼라 꺾임선과 그것으로 인해 조형된 스탠드분, 걸칼라 및 라펠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뒤 칼라 부분의 뒀임 치수는 칼라 달림과 외곽 치수의 차이에 따라 결정되며 스탠드분에 대해서 접어 찌는 칼라 폭이 큰 것일수록 뒀임 분이 많아진다(박혜숙 외, 1998).

여성복 테일러드 칼라를 비교한 홍순태(2001)의 연구에 의하면 의류업체에서 사용하는 칼라의 제도법이 각기 다르고 제작 방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육용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문화식과 임원자식 패턴 제도 방법을 산업계 칼라 제도 방법과 비교해본 결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표준화된 지침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 김구영(2008)의 선행연구에서는 테일러드 칼라 제작 시 문제점으로 칼라와 몸판 뒷목길이, 칼라 봉제 시 걸칼라와 안칼

라의 크기, 라펠 봉제 시 걸라펠과 안라펠의 크기, 꺾임에 의한 칼라의 여유량 및 라펠의 여유량, 꺾임에 의한 라펠의 외곽선 변형, 칼라의 기울기, 고지 라인 부분의 변형, 라펠과 칼라가 이루는 각도 등 외에도 다수가 있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참고로 꺾임선 결정 방법, 테일러드 칼라와 몸판의 뒷목길이, 스탠드분, 칼라 늑힘분, 고지선의 위치, 윗칼라의 패턴 제작 방법, 안단 부분의 라펠 패턴 제작 방법 등의 칼라 제작 요인을 선정하였으며 이들 요인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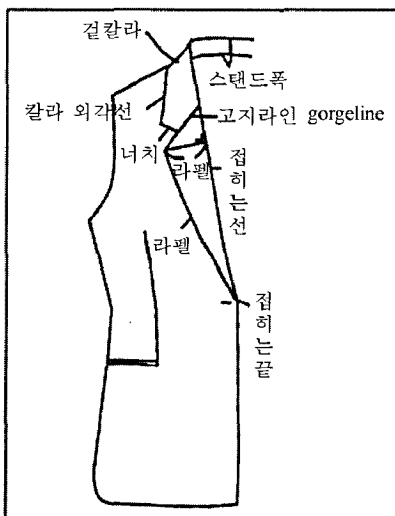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는 대학에서 사용되고 있는 교재의 테일러드 칼라 패턴 제작 방법을 살펴보기 위해 현재 출판된 약 40권의 의복구성 및 패턴 교재를 분석하였으며, 이들 교재 중 본 연구에 적합한 모델인 15권을 선별하였다. 패턴 교재의 경우 테일러드 칼라의 제도법 만 나와 있는 경우가 많았으며 라펠의 안단이나 윗칼라의 걸칼라 수정 방법에 대해 언급이 없는 교재도 다수 포함되어 있어 이들 교재는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테일러드 칼라의 패턴 제작법과 봉제 방법이 함께 설명되어 있는 교재를 중심으로 15권의 교재를 선별하였으며 각 교재에서 꺾임선 결정 방법, 테일러드 칼라와 몸판의 뒷목길이, 스탠드분, 칼라 늑힘분, 고지선의 위치, 윗칼라의 패턴 제작 방법, 안단 부분의 라펠 패턴 제작 방법 등을 각 교재에 제시된 설명과 그림 자료를 통해 비교, 분석하였다. 또 광목을 이용하여 윗칼라와 라펠 부분의 패턴별 칼라 제작을 통해 패턴 간의 차이점을 알아보았다.

본 연구에 사용된 의복구성학 교재는 <표 1>과 같다.

IV. 결과 및 고찰

1. 테일러드 칼라 제도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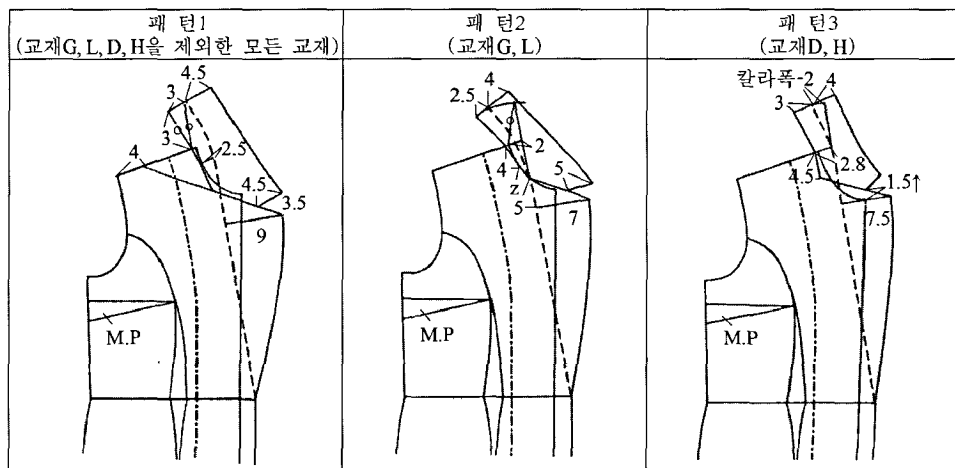
테일러드 칼라 제도 방법은 크게 아래 <그림 2>와 같이 세 가지 방법으로 나타났다. 패턴1의 제도법을 살펴보면 칼라의 목옆점에서 2~2.5cm 나간 점 혹은 목둘레의 1/3 지점에서 2~2.5cm 나간 점을 연결하여 꺾임선을 그린다. 옆목점을 0.5cm 파고 그 곳에서 꺾임선에 평행이 되는 선을 그리고 뒷목둘레길이가 되



<그림 1> 칼라명칭
자료출처: 안화노. (2008). p. 14.

<표 1> 연구에 사용된 의복구성학 교재

서명	저자	출판사	출판연도	
A	의복구성학-설계와 봉제	임원자	교문사	1998(4쇄)
B	테일러링	김경순	교학연구사	1999(2쇄)
C	서양의복구성학	조차, 백채연	교학연구사	2000
D	재킷 패턴과 봉제 실무	안형숙, 배주형, 장효웅	일진사	2001
E	서양의복구성의 실제	권영자, 권순정, 정은아	미진사	2003
F	어패럴 메이킹	어미경, 김인주	교학연구사	2003
G	패턴 메이킹	김은경, 김옥경	학문사	2004
H	재킷 만들기	임병렬, 이광훈, 정혜민	전원문화사	2004
I	의복의 입체구성	강순희, 서미아	교문사	2005(4쇄)
J	테일러링	오설영	한국학술정보	2006
K	서양의복구성	오선희	예학사	2006(3쇄)
L	여성복 패턴 메이킹	유희숙	수학사	2006
M	디자인 패턴과 산업 패턴	곽연신	경춘사	2007
N	서양의복구성방법	박혜숙, 이명희, 이미연	수학사	2009
O	의복구성	이병홍, 최영순	교학연구사	2008(3쇄)



<그림 2> 테일러드 칼라 제도 방법

는 점을 찾는다. 이점에서 어깨선 쪽으로 눕힘분을 찾은 후 옆목점에서 이곳을 향해 뒷목둘레길이 만큼 선을 그린다. 마지막 그은 선에 직각이 되도록 스탠드분과 칼라폭을 정하여 표시한다. 다음으로 윗칼라와 라펠을 구분짓는 고지선을 찾은 후 아래 라펠을 그려주고 이것을 윗칼라와 연결하여 칼라를 완성하는 방법이다. 패턴1은 15개의 교재 중 11개 교재에서 사용하는 방법으로 다른 두 가지 방법에 비해 많은 교재에서 사용하고 있는 제도 방법이었다. 패턴1의 방법에 의해 제도하는 교재는 교재A, B, C, E, F, I, J, K, M,

N, O로 15개의 교재 중 11교재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패턴2는 교재G, L에서 사용하였으며 제도 방법은 옆목점에서 2cm 나가 꺾임선을 그린 후 옆목점을 파고 이 점에서 꺾임선까지 뒷목둘레길이 되는 곳을 찾는다. 옆목점에서 4cm 내려온 점을 기준으로 뒷목둘레길이의 위치까지 반지름으로 원호를 그리고 원을 따라 눕힘분과 스탠드분 만큼 나가 표시를 한다. 이곳을 옆목점에서 4cm 내려온 점과 연결하여 뒷목둘레선을 그린 후 윗칼라와 라펠 부분을 완성하는 방법이다. 패턴3은 교재D와 H에서 사용하였으며

제도 방법은 목옆점에서 2~2.8cm 나가 꺾임선을 그린 후 꺾임선 상의 옆목점에서 뒷목둘레길이 만큼 올려 점을 찾는다. 여기서 직각이 되는 선을 그리고 칼라의 뒷목중심점이 되는 곳을 찾는다. 이곳에서 스탠드분과 칼라폭을 그린 후 윗칼라와 아래 라펠을 마무리하는 방법이다.

동일 치수로 패턴1과 패턴2로 제도를 해본 결과 패턴2로 제도한 칼라가 패턴1로 제도한 칼라보다 0.4cm 정도 더 높힘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패턴3도 역시 같은 치수로 제도 후 방법1과 비교해본 결과 0.3cm 정도 높힘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위의 세 가지 테일러드 칼라 제도 방법에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동일 치수로 제도를 할 경우 거의 유사한 형태의 칼라를 얻을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 테일러드 칼라 제작 요인

테일러드 칼라 제도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꺾임선의 위치, 테일러드 칼라 달림선과 길의 뒷목둘레길이, 스탠드분과 칼라 높힘분 등이 있으며, 또한 봉제 후 편안히 칼라가 놓이기 위해서는 윗칼라와 라펠 부분의 제도 시 안과 겉을 이루는 2장의 패턴에 차이를 두어야 안쪽 칼라가 겉으로 나오지 않고 안정성을 유지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위에서 언급된 칼라 제작 요인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칼라 꺾임선의 위치

칼라 꺾임선의 제도 방법은 옆목점에서 2~3cm 선을 연장한 후 칼라 꺾임선을 그리는 방법(교재A와 I를 제외한 모든 교재)과 목둘레의 1/3 분량 만큼 목옆점에서 내려 온 후 2cm 선을 연장한 후 칼라 꺾임선을 그리는 방법(교재A와 I)이 있었다. 목옆점에서 연장하는 치수는 13개의 교재에서 2~2.5cm 치수를 사용하였으며 2.8cm(교재H), 3cm(교재N)는 각각 1개의 교재에서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테일러드 칼라 달림선과 길의 뒷목둘레길이

테일러드 칼라에 관한 선행연구(홍순태, 2001)에 의하면 패션산업체의 경우 60% 정도가 테일러드 칼라 달림선 길이는 길의 뒷목둘레길이보다 짧게 제도하여 봉제 시 늘여서 사용한다고 하였다. 또한 김구영(2008)의 선행연구에서도 칼라 달림선 길이를 0.5cm 정도 짧게 제도하는 것이 칼라를 달았을 때 주름이 생기

지 않고 자연스런 형태가 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14개의 의복구성학 교재에서는 칼라 달림선 길이와 몸판의 뒷목둘레길이를 동일하게 제도하고 있었고 한 교재(교재M)에서만 칼라 달림선 길이를 뒷목둘레-0.2cm로 표기하였으며 원단에 따라 줄이는 분량을 조정한다고 하였다.

3) 스탠드분

스탠드분은 10개의 교재에서 3cm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4개의 교재에서 2.5cm를 사용하였고(교재G, K, L, O) 한 개의 교재에서만 2cm를 사용하였다(교재D). 스탠드분은 칼라의 꺾임선 결정 시 목옆점 혹은 목둘레의 1/3 지점에서 연장하는 길이와도 관련이 있는데 칼라가 목뒤에서 앞으로 점점 낮아지면서 꺾어지는 것이 자연스러우므로 스탠드분보다 0.5cm 정도 치수를 적게하는 것이 좋다고 하였다(에모리 교코, 1979/1997). 본 연구에 사용된 15개 교재 중 10개 교재(교재B, C, E, F, G, J, K, L, M, O)에서 스탠드분보다 0.5cm 적은 치수를 꺾임선 결정 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선행연구와 일치되는 결과를 나타냈다.

4) 칼라 높힘분

칼라 높힘분은 꺾임선 상에 칼라를 제도할 경우 칼라의 외곽선이 부족해지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칼라를 높혀주는 분량으로 칼라 높힘분이 많을수록 외곽선이 길어져 몸판에 붙는 형태가 되며 칼라 높힘분이 적을수록 칼라가 몸판에서 서는 형태가 된다. 홍순태의 연구에 따르면 패션업체의 경우 칼라 높힘분을 윗칼라의 넓이, 천의 두께 등에 따라 기울기를 조절한다고 하였으나 의복구성학 교재에서는 이에 대한 별다른 설명없이 2~4.5cm까지 다양한 치수를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5) 고지선의 위치

고지선은 윗칼라와 아래라펠을 구분짓는 기준선으로 유행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15개의 교재 중 7개의 교재(교재A, E, F, G, J, K, L)에서 별도의 기준선 없이 꺾임선을 기준으로 몸판에 칼라 모양을 그린 후 대칭으로 옮겨 그리는 방식을 택하고 있었으며, 그 외에 교재에서는 앞목점과 옆목점, 어깨점 등을 기준점으로 삼아 고지선의 위치를 정하고 있었다. 꺾임선을 기준으로 몸판에 칼라 모양을 그린 후 대칭으로 옮겨 그리는 방식의 경우 패턴 제도에 익숙하지 않은

초보자의 경우 기준이될만한 선이 없으므로 칼라를 그리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때문에 위에서 언급한 앞목점과 옆목점, 어깨점 등과 같은 특정 기준점을 중심으로 고지선을 그리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6) 윗칼라의 패턴 제작

윗칼라는 두 겹으로 구성되므로 봉제 시 안칼라가 겹에서 보이지 않기 위해서는 겹칼라가 조금 더 커야 모양새가 좋다. 특히 테일러드 칼라와 같이 꺾임선이 있는 경우 칼라를 겹으로 뒤집으면 안칼라가 밀리게 되므로 여유가 필요하며 소재에 따라 필요한 여유량이 달라진다(김구영, 2008). 겹칼라의 외곽선을 수정하는 방법은 <그림 3>과 같이 크게 5가지 방법으로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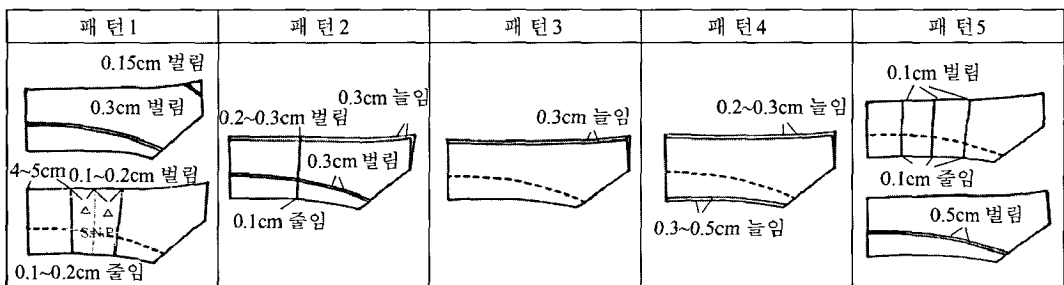
첫 번째 방법은 칼라에 세로 절개선을 넣어 칼라 외곽선을 늘려주고 칼라 달림선은 줄인 후 칼라의 각이 있는 부분과 칼라 꺾임선에 절개를 넣어 다시 한번 늘려주는 방법(권영자 외, 2003)이다. 두 번째 방법은 절개선을 넣은 후 칼라 외곽선을 늘려주고 칼라 달림선은 줄인 후 칼라 꺾임선과 외곽선을 다시 늘려주는 방법(어미경, 김인주, 2003; 오설영, 2006)이며, 세 번째 방법은 외곽선을 0.3~0.5cm 늘려주는 방법(김은경, 김옥경, 2004)이다. 또 네 번째 방법은 칼라 외곽선과 칼라 달림선을 늘려주는 방법(오선희, 2006; 유희숙, 2006)이며 다섯 번째 방법은 그림과 같이 칼라 외곽선을 늘려주고 칼라 달림선은 줄인 후 꺾임선만을 늘려주는 방법(곽연신, 2007)이다. 이외에 패턴 상에서도 봉제 상에서도 아무 설명이 없는 책이 두 권 있었으며 패턴 상에서는 아무 설명이 없고 봉제 과정에서 안과 겹칼라를 차이를 두어 박는다고 설명한 교재가 6개 있는 것으로 나타냈다.

겹칼라에 여유분을 주기위해 외곽선을 수정하는 방법을 살펴본 결과 패턴1, 패턴2, 패턴4, 패턴5의 경우 패턴 수정 과정에서 칼라 달림선 길이를 0.1~0.4cm 가량 줄여주어 길의 목둘레길이보다 짧아짐을 알 수 있었다. 즉 선행연구에서 칼라 달림선 길이를 길의 목둘레선 길이보다 0.5cm 정도 짧게 제도하는 것이 칼라를 달았을 때 주름이 생기지 않고 자연스런 형태가 된다고 하였는데 패턴1, 패턴2, 패턴4, 패턴5는 칼라 달림선 길이를 줄여주는 분량에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선행연구 결과에 가깝게 제도한 방법임을 알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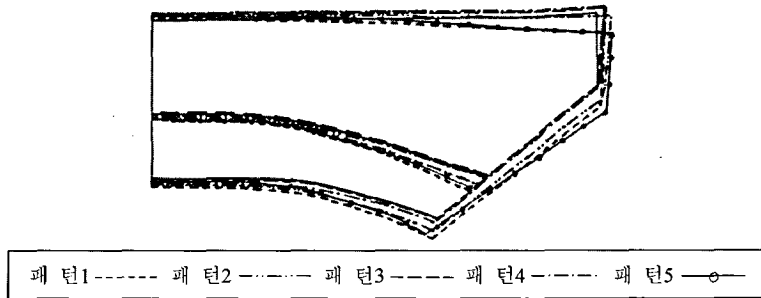
<그림 4>는 윗칼라를 5가지 방법에 따라 수정 한 후 중합한 것이다. 패턴3과 패턴4는 칼라의 원형에서 여유분을 더 넣어 크기가 약간 커진 것 이외에 외곽선의 형태에는 크게 변화가 없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패턴2의 경우 칼라 원형에 여유분을 넣어 크기가 더 커지면서 칼라 끝 부분이 아래쪽으로 0.2cm 정도 내려갔으며, 패턴1과 패턴5의 경우 칼라의 원형에서 칼라 끝 부분이 1cm 가량 내려간 형태를 나타냈다.

7) 안단 부분의 라펠 패턴 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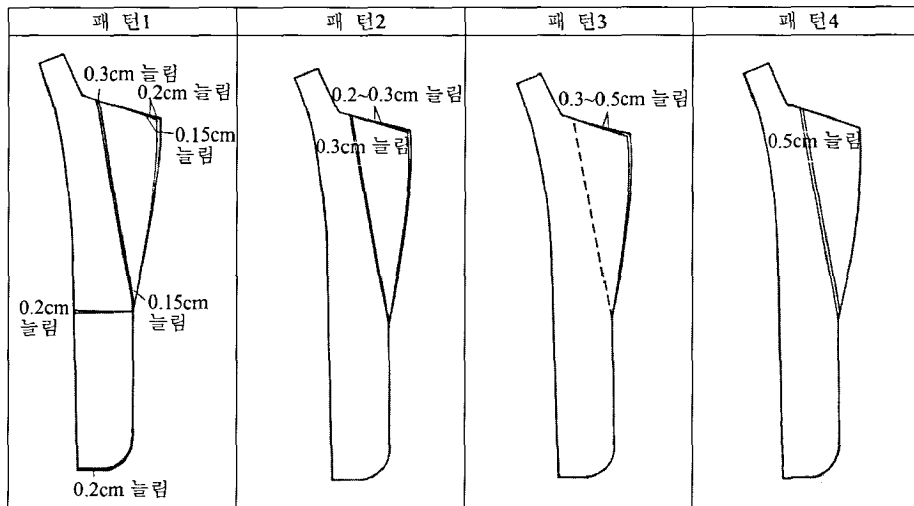
라펠도 윗칼라에서와 마찬가지로 꺾임선 부분에서 부드럽게 꺾이면서 아래 칼라 부분을 이루는데 이때 겹감과 안단 부분의 라펠 크기가 같을 경우 안쪽에 들어가는 라펠은 여유분이 남고 겹으로 나타나는 라펠은 모자라게 된다. 때문에 겹으로 드러나는 안단 부분의 라펠은 여유분을 고려하여 패턴을 제작하여야 한다. 안단 부분의 라펠 패턴 제작 방법은 <그림 5>와 같으며 크게 4가지 방법이 있었다. 주로 라펠의 외곽선과 꺾임선을 늘려주는 방식에 의해 패턴 수정이 이루어짐을 알 수 있었다. 첫 번째 방법은 라펠 외곽선을 늘려주고 꺾임선과 라펠 끝 부분을 늘려주는 방법



<그림 3> 윗칼라 패턴 제작 방법



<그림 4> 윗칼라 패턴별 중합도



<그림 5> 안단 부분의 라펠 패턴 제작 방법

(권영자 외, 2003)이고, 두 번째 방법은 라펠 외곽선과 꺾임선을 늘려주는 방법(어미경, 김인주, 2003; 오설영, 2006; 유희숙, 2006)이다. 또한 세 번째 방법은 라펠 외곽선만을 늘려주는 방법(김은경, 김옥경, 2004; 오선희, 2006)이고, 네 번째 방법은 꺾임선만을 늘려주는 방법(곽연신, 2007)이다. 그 외에 아무런 설명이 없는 교재가 4개, 봉제 시 차이를 두어 박는다고 설명한 교재가 4개 있었다.

라펠 패턴 제작 방법을 살펴본 결과 위의 4가지 패턴은 라펠의 외곽선을 늘려주는 방법과 꺾임선을 늘려주는 방법 혹은 이 두 가지를 조합하는 방법이 있었다. 하지만 늘려주는 분량을 동일하게 하였을 경우 4가지 패턴은 크기나 형태에 있어서 거의 유사하므로 결국 패턴 제작 방법보다는 외곽선 혹은 꺾임선에서 늘려주는 분량이 더 중요한 요인이라 생각된다.

교재별 테일러드 칼라 패턴 제작 방법을 요약한 결

과는 아래 <표 2>와 같다.

3. 패턴별 칼라 제작에 따른 비교

<그림 3>, <그림 5>에 나타난 윗칼라와 라펠의 각 패턴 제작에 따른 차이를 비교해보고자 광목으로 실험복 5벌을 제작하였다. 즉 칼라와 라펠의 패턴1로 재킷을 한 벌 제작하였으며 칼라와 라펠의 패턴2로 또 다른 한 벌에 만들었고, 패턴3과 패턴4도 동일한 방법을 적용하였다. 또 칼라의 패턴5는 라펠의 패턴1과 함께 제작하였다.

<그림 6>은 재킷 윗칼라를 패턴별로 제작한 결과이다.

칼라 제작 결과 패턴1, 패턴2, 패턴4는 안쪽으로 0.3cm 가량 겹칼라의 여유분이 생겼으며 패턴3은 0.2cm, 패턴5는 0.5cm의 여유분이 생기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

<표 2> 교재별 테일러드 칼라 패턴 제작 방법

제도 방법	각임선 위치	칼라 달림선과 뒷목둘레길이	스탠드본	칼라 높임본	고지선 위치	윗칼라 패턴 제작	라펠 패턴 제작
A 패턴1	옆목점에서 목둘레의 1/3 만큼 내린 지점에서 2cm 나간 점과 연결	동 일	3cm	2.5cm	쪽임선을 기준으로 몸판에 원하는 칼라 모양을 제도함	봉제 시 설명(0.2~0.3cm 차이를 뚫)	설명없음
B 패턴1	옆목점에서 2.5cm 나간 점과 연결	동 일	3cm	2.5cm	넥라인과 각임선이 만나는 지점에서 경사각도 결정	봉제 시 설명(0.3~0.5cm 차이를 뚫, 소재두께에 따라 결정)	봉제 시 설명(0.2cm 더 크게 봉제)
C 패턴1	2.5cm 나간 점(정확한 위치 설명 없음)과 연결	동 일	3cm	3cm	어깨끝점 기준으로 고지선을 그려나 정확한 설명 없음	봉제 시 설명(0.1cm 차이를 뚫)	설명없음
D 패턴3	옆목점에서 2cm 나간 점과 연결	동 일	2cm	2.5cm	중심선에 직각이 되는 선을 사용	설명없음	설명없음
E 패턴1	옆목점에서 2.5cm 나간 점과 연결	동 일	3cm	4.5cm	쪽임선을 기준으로 몸판에 원하는 칼라 모양을 제도함	<그림 3>의 패턴3	<그림 4>의 패턴1
F 패턴1	옆목점에서 2.5cm 나간 점과 연결	동 일	3cm	2cm	쪽임선을 기준으로 몸판에 원하는 칼라 모양을 제도함	<그림 3>의 패턴4	<그림 4>의 패턴2
G 패턴2	옆목점에서 2cm 나간 점과 연결	동 일	2.5cm	3.5~4.5cm	쪽임선을 기준으로 몸판에 원하는 칼라 모양을 제도함	<그림 3>의 패턴1	<그림 4>의 패턴3
H 패턴3	옆목점에서 2.8cm 나간 점과 연결	동 일	3cm	칼라폭: 2cm	옆목점에서 쪽임선과 평행하게 아래로 4.5cm 내린 점과 앞목점에서 1.5cm 올린 점을 연결	봉제 시 설명(소개에서 차이는 치수 만큼)	봉제 시 설명(0.1~0.2cm 더 크게 봉제)
I 패턴1	옆목점에서 목둘레의 1/3 만큼 내린 지점에서 2cm 나간 점과 연결	동 일	3cm	3cm	어깨끝점에서 4cm 올라간 점 ~ 앞목점에서 1cm 내린 점	봉제 시 설명(0.2cm 차이를 뚫)	봉제 시 설명(0.2cm 차이를 뚫)
J 패턴1	옆목점에서 2.5cm 나간 점과 연결	동 일	3cm	2cm	쪽임선을 기준으로 몸판에 원하는 칼라 모양을 제도함	<그림 3>의 패턴4	<그림 4>의 패턴2(라펠 아래 부분도 0.3cm 늘림)
K 패턴1	옆목점에서 2cm 나간 점과 연결	동 일	2.5~3cm	2.5cm	쪽임선을 기준으로 몸판에 원하는 칼라 모양을 제도함	<그림 3>의 패턴2	<그림 4>의 패턴3
L 패턴2	옆목점에서 2cm 나간 점과 연결	동 일	2.5cm	4.5cm	쪽임선을 기준으로 몸판에 원하는 칼라 모양을 제도함	<그림 3>의 패턴2	<그림 4>의 패턴2
M 패턴1	옆목점에서 2.5cm 나간 점과 연결	뒷목길이-0.2	3cm	2cm	옆목점에서 2.5cm 나간 점에 서 6cm 내려와 고지선 시작함	<그림 3>의 패턴5	<그림 4>의 패턴4
N 패턴1	옆목점에서 3cm 나간 점과 연결	동 일	3cm	2~3cm	어깨끝점과 앞목점에서 1cm 내린 점 연결	봉제 시 설명(0.3~0.6cm 차이를 뚫)	봉제 시 설명(0.3~0.5cm 차이를 뚫)
O 패턴1	옆목점에서 2cm 나간 점과 연결	동 일	2.5cm	3.2cm	경사에 따라 조절함	설명없음	설명없음

패 턴1(여유분 0.3cm)	패 턴2(여유분 0.3cm)	패 턴3(여유분 0.2cm)	패 턴4(여유분 0.3cm)	패 턴5(여유분 0.5cm)

<그림 6> 재킷 윗칼라 패턴별 제작

패 턴1	패 턴2	패 턴3	패 턴4

<그림 7> 안단 부분의 라펠 패턴별 제작

다. 즉 얇은 옷감의 경우 패턴1, 패턴2, 패턴3, 패턴4에서와 같이 0.2~0.3cm 가량의 여유분이 적당한 것으로 생각되며, 패턴5는 너무 많은 분량이 안쪽 여유분으로 나타나 외관상 적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칼라에 대한 선행연구와 칼라 제작 결과를 비추어볼 때 걸칼라의 경우 칼라 달림선이 있는 부분은 안칼라의 안쪽인 목 부분에 위치하므로 패턴1이나 혹은 패턴5와 같이 목둘레를 줄여주는 것이 형태적으로 안정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또 걸칼라의 외곽선 쪽은 안칼라의 위쪽에 위치하면서 어깨를 따라 앞중심 쪽으로 도는 형태이므로 단순히 칼라 외곽선 바깥쪽만을 키워 주는 패턴3이나 패턴4보다는 패턴1이나 패턴5와 같이 칼라에 세로 절개선을 넣어 칼라 크기를 키워주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결과적으로 5가지의 패턴 중 패턴1이 걸칼라의 패턴으로 우수한 것으로 생각되나 칼라 모서리 부분을 절개하여 0.15cm 벌리는 작업은 실제 칼라 제작 후 다른 패턴과 비교과정에서 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패턴 작업의 용의성을 고려해볼 때 생략하여도 무관하리라 판단된다. 다음으로 안단 부분의 라펠 패턴 제작 시 패턴1은 0.65cm의 여유분이 있었고, 패턴2와 패턴4는 0.5cm의 동일한 여유분이 있었으며, 패턴3은 0.3cm의 여유분이 있었다. 제작 결과는 <그림 7>과 같으며, 안단 부분의 4가지 패턴을 비교해본 결과 패턴1은 봉제 시 다소 많은 여유분이 있었으나 나머지 세 가지 패턴과 외관상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이상과 같이 윗칼라와 안단의 각 패턴 제작에 따른 차이를 비교해본 결과 윗칼라는 패턴1이 가장 적당한 제작 방법이라 생각되며, 안단 부분의 라펠의 경우 패턴별로 여유분의 차이가 있을 뿐 패턴 제작 방법에 의한 큰 차이를 발견하기 어려웠다. 본 연구는 광목 소재에 한정되어 칼라를 제작해 보았으므로 좀 더 다양한 소재에 따른 여유분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통해 대표 소재별로 적당한 여유분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IV. 결 론

본 연구는 테일러드 칼라 패턴 제작 방법을 살펴보기 위해 현재 출판된 약 40권의 의복구성 및 패턴 관련 교재 중 본 연구에 적합한 모델인 15권을 선별하였으며 각 교재에서 테일러드 칼라 제작 요인 중 칼라와 몸판의 뒷목길이, 걸칼라와 안칼라의 크기, 걸라펠과 안라펠의 크기, 고지선의 위치, 스탠드분, 칼라 늑힘분, 꺾임선 결정 방법 등을 비교, 분석하였다. 또 윗칼라와 안단 부분의 라펠을 패턴별로 제작하여 패턴 간의 차이점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본 연구에 사용된 15권의 의복구성학 교재에 나타난 테일러드 칼라 제도 방법은 크게 3가지였다. 이

3가지 방법은 제도 방법에는 다소 차이를 보였으나 같은 치수로 제도하였을 경우 거의 유사한 형태의 칼라를 얻을 수 있었다.

2. 꺾임선의 제도 방법은 목옆점에서 2~3cm 선을 연장한 후 꺾임선을 그리는 방법과 목둘레의 1/3 분량 만큼 목옆점에서 내려 온 후 2cm 선을 연장한 후 꺾임선을 그리는 방법이 있었는데 13개의 교재에서 2~2.5cm 치수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테일러드 칼라 달림선과 길의 뒷목둘레길이를 살펴보면 14개의 의복구성학 교재에서 칼라 달림선 길이와 몸판의 뒷목둘레길이를 동일하게 제도하고 있었으며 한 교재에서 만이 윗칼라의 뒷목둘레길이를 뒷목둘레-0.2cm로 표기하였으며 원단에 따라 줄이는 분량을 조정한다고 하였다.

4. 스탠드본은 10개의 교재에서 3cm를 사용하여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4개의 교재에서 2.5cm를 사용하였고, 한 개의 교재에서만 2cm를 사용하였다. 또한 칼라 높힘분은 윗칼라의 넓이나 천의 두께 등에 대한 고려없이 2cm에서 4.5cm까지 다양한 치수를 사용하고 있었다.

5. 고지선은 15개의 교재 중 7개의 교재에서 별도의 기준없이 꺾임선을 기준으로 몸판에 칼라 모양을 그린 후 대칭으로 옮겨 그리는 방식을 택하고 있었으며, 일부 교재에서는 앞목점과 옆목점, 어깨점 등을 기준으로 삼아 고지선의 위치를 정하고 있었다. 패턴을 처음 접하는 초보자의 경우나 학생들의 경우 기준이 될 만한 특정점을 지정해 주는 것이 제도를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대부분의 교재에서 채택하고 있는 꺾임선을 기준으로 몸판에 칼라 모양을 그리는 방법은 숙련자에게 적합한 방법으로 판단된다.

6. 윗칼라 패턴 제작은 크게 5가지 방법이 있었다. 첫 번째 방법은 칼라에 세로 절개선을 넣어 칼라 외곽선을 늘려주고 칼라 달림선은 줄인 후 칼라의 각이 있는 부분과 칼라 꺾임선에 절개를 넣어 다시 한번 늘려주는 방법이며, 두 번째 방법은 절개선을 넣은 후 칼라 외곽선을 늘려주고 칼라 달림선은 줄인 후 칼라 꺾임선과 외곽선을 다시 늘려주는 방법이다. 또 세 번째 방법은 외곽선을 0.3~0.5cm 늘려주는 방법이며, 네 번째 방법은 칼라 외곽선과 칼라 달림선을 늘려주는 방법, 다섯 번째 방법은 칼라 외곽선을 늘려주고 칼라 달림선은 줄인 후 꺾임선만을 다시 늘려주는 방법이었다. 또한 패턴 상에서도 봉제 상에서도 아무 설명이 없는 책이 두 권 있었으며 봉제 과정에

서 안과 겹칼라를 차이를 두어 박는다고 설명한 교재가 6개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윗칼라 패턴별 중합도를 살펴본 결과 패턴3과 패턴4는 칼라의 원형에서 여유분을 더 넣어 크기가 약간 커진 것 이외에 외곽선의 형태에는 크게 변화가 없었으나 패턴1과 패턴5의 경우 칼라의 원형에서 칼라 끝 부분이 1cm가량 내려간 형태를 나타냈다.

7. 안단 부분의 라펠 패턴 제작 방법은 크게 4가지 방법이 있었으며 아무런 설명이 없는 교재도 3개 있었으며 봉제 시 차이를 두어박는다고 설명한 교재도 4개가 있었다.

8. 광목을 이용하여 윗칼라와 안단 부분의 라펠을 제작해 본 결과 윗칼라의 경우 패턴1이 가장 적합한 패턴 제작 방법인 것으로 판단되며, 라펠의 경우 여유분의 차이 이외에 외관 상 혹은 각 패턴 상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아 제작 방법보다는 여유분 설정이 더 중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과 같이 대학에서 사용하고 있는 교재를 중심으로 테일러드 칼라의 제작 요인을 살펴본 결과 다양한 패턴 제작 방법과 치수를 사용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의류의 특성 상 다양한 소재의 두께 차이와 신축성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구체적인 치수는 언급되지 않았다. 다양한 소재에 대해 소재별로 제도 시 치수를 언급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므로 숙련자에게는 칼라를 가봉한 후 겹칼라와 안칼라의 차이 나는 분량만큼 더 키워준다고 설명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의복구성을 처음 접하는 학생의 경우 기준이 될 만한 대표 소재를 몇 가지 선정하여 이에 대한 치수를 제시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 강순희, 서미아. (1988). *의복의 입체구성*. 서울: 교문사.
 강순희, 서미아. (2005). *의복의 입체구성-이론 및 실기*. 서울: 교문사.
 박연신. (2007). *디자인 패턴과 산업 패턴*. 서울: 경춘사.
 권영자, 권순정, 정은아. (2003). *서양의복구성의 실제*. 서울: 미진사.
 김경순. (1999). *테일러링*. 서울: 교학연구사.
 김구영. (2008). *여성복 테일러드*. 창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명옥. (2006). *신축성 직물 재킷의 안감 패턴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선영, 최영순. (2006). 의복구성 교재에 나타난 타이트 스킷트 봉제 방법에 관한 비교연구. *복식*, 56(8), 367-376.

- 김은경, 김옥경. (2004). *패턴 메이킹*. 서울: 학문사.
- 김은섭. (2000). *재킷 제도법의 여유량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현식. (2004). *20대 여성의 재킷 패턴 설계*.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희진. (2003). *20대 여성을 위한 재킷 원형 비교*. 경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류숙희, 박중희. (2004). 중년여성의 체형과 신체만족도에 따른 테일러드 재킷의 이미지 평가 및 선호도-칼라 형태를 중심으로-. *한국의류산업학회지*, 6(3), 367-376.
- 박은경. (1990). *재킷의 기본형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혜숙. (1987). *피복구성학 이론편*. 서울: 경춘사.
- 박혜숙, 이명희, 이미연. (2009). *서양의복구성방법*. 서울: 수학사.
- 박혜숙, 최경미, 조영아, 옹혜정. (1998). *피복구성학 이론편*. 서울: 교학연구사.
- 심재희. (2002). *숙녀복 재킷 생산 실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안형숙, 배주형, 장효웅. (2001). *재킷 패턴과 봉제 실무*. 서울: 일진사.
- 안화노. (2008). *테일러드 재킷의 칼라 패턴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어미경. (1996). *의류봉제 업계의 활성화 방안 연구: 생산시스템을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어미경, 김인주. (2003). *어패럴 메이킹*. 서울: 교학연구사.
- 에모리 고코. (1979). *실제와 봉제 방법의 비결-칼라*. 이효진 옮김 (1997). 서울: 민음사.
- 오선희. (2006). *서양의복구성*. 서울: 예학사.
- 오설영. (2006). *테일러링*. 서울: 한국학술정보.
- 유희숙. (2006). *여성복 패턴 메이킹*. 서울: 수학사.
- 이병홍, 최영순. (2008). *의복구성*. 서울: 교학연구사.
- 이보나. (2005). *테일러드 칼라의 패턴 제도법에 따른 시각적 이미지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영재. (1996). *신사복 미학*. 서울: 프림투.
- 임병렬, 이광훈, 정혜민. (2004). *재킷 만들기*. 서울: 전원문화사.
- 임원자. (1998). *의복구성학-설계와 봉제*. 서울: 교문사.
- 장세은. (2006). *여성 테일러드 재킷의 소재별 패턴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정미경. (1993). *여성슈트의 이미지 구성요인 및 변화 동향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조차, 백채연. (2000). *서양의복구성학*. 서울: 교학연구사.
- 최경자, 신혜순. (2001). *패턴 메이킹 & 의복구성*. 서울: 교문사.
- 한정숙. (1996). *테일러드 재킷 디자인 변화에 따른 시각적 효과*.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홍순태. (2001). *여성복 테일러드-생산현장 중심으로*. 대구산업대학교 논문집, 15, 253-264.